‘삼국유사’ 읽기를 권하는 까닭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근현대 시기 우리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를 첫손가락에 꼽아도 좋을 것 같다. 그만큼 많이 읽혀지고, 그 내용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는 까닭이다.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필자는 ‘유사’의 의미를 ‘남겨야 할 이야기’ 혹은 ‘일연 스님이 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로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이다. 경덕왕이 충담 스님과 표훈 스님을 만난 두 가지 이야기가 졸가리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남산 삼화령의 미륵부처님께 차를 공양하고 오는 충담 스님에게 경덕왕이 차 한 잔과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노래를 지어 줄 것을 청하는 이야기이다. 충담 스님은 차 한 잔을 다려 올리고는 안민가(安民歌)라는 향가 한 수를 지어 왕을 훈계한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면 나라와 백성의 삶이 저절로 평안해진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왕권을 계승할 아들을 얻기를 바라는 경덕왕과 표훈 스님의 이야기이다. 표

경덕왕·충담·표훈 스님 일화
두 스님의 왕에 대한 경책 담겨
일연스님이 묻는다 “답게 사는가”

훈 스님이 살펴보니 딸은 얻을 수 있으나 아들을 얻을 인연은 없었다. 그래서 경덕왕에게 묻는다.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왕자를 얻겠느냐고 묻는다. 경덕왕은 왕자 얻기를 고집한다. 그 왕자가 후에 혜공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살해당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루는 것은 경덕왕과 충담 스님이 만나는 이야기이고, 경덕왕과 표훈 대덕이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핵심은 왜 경덕왕 시대를 기점으로 신라라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는가 하는 대목이다. 일연 스님은 그 이유를 두 스님과의 일화를 통해서 제시한다.

충담 스님이 지은 안민가는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고 경덕왕에게 훈계한다. 사실은 왕이 왕답지 못하다고 훈계한 것이다. 훈계를 하는 충담스님에게 미륵부처님에게 차를 다려 올린 것처럼 나에게도 차를 다려 한 잔 달라고 경덕왕은 청한다. 부처님처럼 자신도 존중받고 싶어 한 것이다. 그런 왕에게 충담 스님은 존중받고 싶다면 왕답게 행동하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표훈 스님 이야기는 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라의 안정이 먼저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경덕왕은 아들을 택한다. 역시 본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경덕왕의 위태로움을 들추어낸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주제는 명확하다. 무엇이, 혹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라 안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 반대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필자는 〈삼국유사〉를 읽을 때마다 일연 스님이 다음과 같이 묻는 것만 같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처음 세웠던 서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요?”

문화유산 환수, 이야기 담아내야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는 국보 경천사지십층석탑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 3층 높이 너머까지 치솟아 마치 하늘까지 닿을 기세이다. 탑의 시작부터 3층까지는 아(亞)자 모양으로 구성되고 그 후 10층까지는 정사각형으로 그 아리아리한 자태가 아찔하다. 그리고 섬세하게 불보살과 꽃 모양 등을 조각하여 이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탑이 있던 곳은 개성 부소산 경천사로 탑의 몸돌에 고려 충목왕 4년(1348)에 진녕부원군 강융 등이 후원하여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어 탄생 내력이 분명한 탑이다.

아름다움 이 탑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각으로 잘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츠아키는 조선 황태자가 하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탑을 난도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를 안 영국인 어니스트 베넬은 〈대한매일신보〉에 약탈 사실을 폭로했고. 미국인 호머 헐버트는 전 세계에 이를 알렸다.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조선총독부는 반환을 요청했고 탑은 1918년 돌아왔다.

그러나 탑의 안내문에는 약탈과 반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간단히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돌아왔다고만 되어있다. 영문 안내문에는 그런 사실조차 없다. 탑의 반환을 위해 힘

경천사지십층석탑 日서 환수엔
미·영 도움… 안내판엔 내용 無
이야기, 문화유산 생명임 알아야

쓴 영국인과 미국인의 노고에 대해 단 한마디의 영문 설명도 없으니 탑의 탄생부터 지난 역사를 풍부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환수한 대부분의 유산도 비슷하다. 1945년 광복이후 환수한 유산이 약 1만 2000점이지만 반출과 환수는 간단히 기술하거나 이조차 생략한다. 우리는 피해국가로 피해 사실과 원상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알리는 것이 유산의 역사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하는 일이다. 유산의 생명은 이야기이다. 다음세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은 ‘이야기를 품은 유산’이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환수한 유산을 중심으로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을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 묘소 인근에 조성 중이다. 환수박물관은 재단이 환수한 유산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인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공유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관’을 조성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체험관’을 만들어 실물 체험과 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수집가, 소장가의 세대교체로 인해 해외로 나가 있는 개인 소장품이 국적도 없이 외국 골동품 상인에게 팔려가거나, 은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환수박물관은 개인이 소장한 유물의 기증, 기탁을 촉진하고 협력, 지원함으로 위기에 빠진 유산을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유산신탁은행’을 운영할 것이다. 유산은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가 더욱 높다.

유산은 역사이므로 계승되어야 미래가 있다. 문화산업의 원천인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일은 문화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社 說

이모지 ‘불교 패싱’ 적극 대응 나서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서비스되는 이모지에 불교 사찰만이 누락돼 논란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대대적인 이모지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과 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졌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종교에 대한 개선은 없었던 것 같다.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의 모스크와 카바 신전, 유대교 교당, 힌두교 사원 심지어는 일본 신도의 상징인 토리이까지 확인되지만, 불교의 사찰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불교’를 검색했을 때 확인되는 이모지는 ‘법륜’ 1개뿐이다. 반면 기독교 관련 이모지는 6개에 달한다.

이모지나 이모티콘 등은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다. 한국인의 70%가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모지라면 사실상 공공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신도가 있고, 국내에서도 종교인구 1, 2위를 다투는 종교인 불교에 대한 이모지가 현격하게 적은 것은 최근 대두되는 ‘종교적 감수성’에 대한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불교계 역시 ‘사찰 이모지 누락’에 대해서 엄정히 따져 물어야 한다. 실제 어도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6%가 직장에서 활발하게 이모지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이모지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범불교적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도 이제 1년이 됐다.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에는 상월결사를 이끌며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자승 대종사의 발자취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傳法)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승 대종사는 입적 전 가진 불교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법 원력 관련 이야기를 털어놨다. 1986년 대덕사 주지로 부임해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기도와 축원을 하며 전법에 나섰다. 이런 노력으로 첫 법회에서는 5명이 오던 것이 1년 만에 150명으로 신도가 늘었다. 자승 대종사는 “전법에 몰두하니 불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전법의 소중함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자승 대종사가 백담사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고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정진을 하고,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삼보사찰 천리순례(2021)·평화방생순례(2022)·인도순례(2023)를 진행한 것도 모두 전법 원력을 결집시키기 위함이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자승 대종사는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라는 대중에게 화두를 던졌다.

자승 대종사가 던진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한국불교 화두이자 목표가 됐다. 특히 대학생·청년 전법은 미래 불교 성패를 좌우하는 대작 불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승 대종사의 1주기, 다시 한번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2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2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2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